

추태화

본회 연구위원, 독문학박사, 방송통신대
학보사 업무국장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기독교학문 및 기독교교양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제안

Interdisciplinary Study on "Literature and Theology"

본 논문은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가 펴낸 『신학연구』제 5집 (1997 가을호)에 수록된 것이다. 전문계재를 허락한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에 감사드리며, "신앙과 학문"이라는 소명감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는 본회 회원들에게 조그마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 저자.

1. 들어가는 말

학문은 인간의 역사와 문명을 이끌어 가는 사상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인식논리를 구성한다. 서구적인 개념으로 학문을 Wissenschaft라고 명명함으로써 "체계화된 과학적 논리의 지식"으로 이해되는데, 학문은

그 엄정한 객관성으로 인해 인간이 이룬 문명의 꽃이라 불릴만하다. 인간은 학문을 통하여 사상과 사유를 체계화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므로 '학문의 중립성'이 강조되지만 그 고유한 영역에서 형성된 논리와 방법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학문의 토양이 되는 분야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접근 및 연구방법의 특수성 때문에 학문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고집하는 성향을 띠고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불리는 현대에 들어와서 학문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고집해왔던 분야가 타분야와 연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방법론의 강요도 시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다. 나아가서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는 학문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어서 학문들은 서서히 '통합'이라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통합이라는 개념이 근대적인 의미에서 기독교계에 접목된 것은 학문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통합연구'는 기독교사상이 배제된 학문의 세계에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조명하자는 의도로 씌였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통합이 요구되었던 것일까? 우리의 주제인 문학과 신학 분야로 국한시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문학과 신학이 본래 가까운 사이였으면서도 역사적으로 반목된 시선을 서로에게 보여왔던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문학은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려는 감성으로 '탈(脫)시대성'을 대표한다고 보였고, 신학은 종종 기성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 내지는 권위주의로서 '비(非)시대성'을 표현한다고 보였다는 말이다.

이 글은 문학과 신학의 만남이 '필연'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는 다시 문학과 신학의 만남이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로 집약될 수 있겠다. 문학과 신학의 만남은 두 가지 불가피한 접근양식을 보여준다.

첫째로, 문학과 신학은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하나의 뿌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치 한 몸에 두 얼굴 내지는 두 인격으로 탄생한 삼 쌍둥이 같은 운명이 문학과 신학이 걷는 길이다. 이는 통합연구의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Synchronic Approach)이라 하겠다.

둘째로, 문학과 신학의 해후는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판단이다. 학문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적인 변화가 이미 무르익었다는 말이다. (아니면 늦은 일인지도 모른다) 시대적인 변화에 의하여 더 이상 유효되어져서는 안될 연구방법론이라는 생각이다. 통시적인 접근(Diachronic Approach)의 근거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자세히 관찰하면 한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돌리'라는 유전자복제에 의해 탄생된 양을 놓고 볼 때 유전공학, 윤리학, 법의학, 환경문제 등 여러 분야의 조건을 고려하여 연구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한 주제가 품고 있는 복합성은 통합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 때는 학문이 세계를 움직이던 때가 있었다. 학문적 사유(思惟)와 이론이 실천의 동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현재 그런 이론을 고집하기에는 어딘가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론(Theory)과 실천(Practice)이란 주제가 철학의 고유영역으로서 사유가 모든 삶의 영역에 규범과 기준이 되는 이론을 확립하는 주체로서 역사의 중심에 자리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규범과 기준을 설정하는 기초로서 실천의 영역을 우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윤리, 도덕과 같은 개념도, 과거에 통용되었던 공동선(公同善)과 같은 기준도 낡고 거추장스러운 의상으로 치부된다. 모든 기준설정 최전방에는 우선 '현장'이 위치한다.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만을 고집해서는 융통성 있게 시대에 대처하며,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 원리는 학문에도 적용된다. 문학과 신학이 통합된 관점, 즉 신학과 문학이 이론과 실천의 역할을 서로 다하므로 변증법적인 토의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문학과 신학의 만남을

주선하려 한다. 두 학문은 화해해야만 하며, 또 화해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만남이 의외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은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라는 방법론으로 구체화되며, 앞으로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해 내며,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각 장은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체계화하는데 요구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제 2장에서는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시적 근거에 관하여, 그 내적 요소에 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제 3장에서는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이루어지는 통시적 근거, 그 외적 요소에 관하여 언급하려 한다. 제 4장에서는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구체적인 체계와 구조를 논하기 전에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학문』 및 『기독교교양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5장은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기독교학문』과 『기독교교양교육』의 사이를 연계시킬 수 있는 한 독립된 연구 분야로서, 나아가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과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한 분야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2. 문학과 신학, 두 학문의 상호배타성과 통합성

2.1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터툴리안(Tertulian, 160?-220)의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¹⁾라는 부가의문문은 오랫동안 교회와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불법적 사교를 비유하는 선언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이교도 세계’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불사하였던 교부 터툴리안에게 아테네

1) Ch.N.Cochrane, 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 A Study of Thought and Action from Augustus to Augustine 『기독교와 고전문화』, 이상훈, 차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p.285-345. 그 중에서도 특히 pp.296-301 참조.

와 예루살렘의 관계는 화해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표현에 등장하는 두 도시는 각각의 문화적 분위기를 대표하고 있다. 아테네는 제우스, 프로메테우스, 디오니소스 등과 같은 제신(諸神)들로 구성된 신화의 세계, 그들에 대한 우상숭배, 그리고 철학과 세속적 변론으로 어우러진 인본주의 세계를 대변한다면, 예루살렘은 창조주 야훼 신앙, 유일신 사상, 강력한 신권중심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언의 모태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상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십계명의 제 2계명은 우상숭배를 절대 금하고 있다.¹⁾ 당시에도 문학을 포함한 예술이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봉사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아왔던 것이다. 예술은 사람들의 종교성에 부응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신적 존재들을 만들었고 숭배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세상의 예술인은 바른 신앙을 갖게 하지 못하는 부류로 경멸을 받았으며, 일부 예술은 그런 상황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신앙세계와 세상문화의 대립현상은 신약시대로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가르침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²⁾ 특히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육체’(Flesh)와 ‘세상’(World)을 거론하면서, 이는 신앙을 따르지 않는 속성으로 신앙과 공존할 수 없기에 기독교인의 삶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³⁾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체험한 것처럼 우상숭배

1)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 20:1-17 참조.

2) R.Webber, *The Secular Saint: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기독교문화관』 이승구 역 (엠마오, 1984), p.78.

3) D.H.Whiteley, *The Theology of St. Paul*, 한익신 역 (서울: 나단, 1993), pp.67-70 참조. 여기에서는 ‘육체’에 대한 바울의 사상을 개진하고 있다. 바울의 신앙관은 철학자 니아체에게서 신랄하게 비판된다. 니아체의 기독교 비판은 바울사상 비판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는 바울이 예수가 일으킨 사랑의 종교를 거부장적이며 독선적인 종교로 변질시켰다고 고발하였던 것이다. U.Kühneweg, *Nietzsche und Jesus - Jesus bei Nietzsche*, in: *Nietzsche Studien* Vol.15, (Berlin, NY, 1966), pp.382-397.

의 현장에 예술이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예술은 우상숭배에 봉사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였다.” 초기교회사에서 보이는 이단 및 이교도적 풍습과의 논쟁, 중세시대의 하나님 나라(Civitas Dei)와 사단의 제국(Civitas Diaboli)의 이분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우상파괴운동 등은 신학이 문학이나 예술과 같은 분야와 서로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제공한다.

위에서 보건대, 문학과 신학의, 역으로 신학과 문학의 반목은 성서의 역사만큼이나,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 대치의 이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근거도 자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한 연유로 문학과 신학은 오랫동안 통합될 수 없는 분야로 보였었다. 어느 신학자의 고백은 이 논리를 솔직히 수긍하고 있다. 그는 신학과 신앙이 생명력을 잃고 논리만 남을 때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 이렇게 해서 신학과 문학은 거리가 멀어져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학과 문학은 거리가 점점 멀어만 갔다.”²⁾

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신학과 문학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신학은 문자 그대로 Theology(신에 관한 논리를 다루는 학문)로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학문으로 숭상되었고, 문학은 Literature(글로 쓰여진 것을 다루는 학문)로 인간 내면과 감정의 세계를 다루는 ‘땅’의 학문으로 천박하게 취급되어지기도 하였다. 이 하늘과 땅의 비유적 이해는 신학은 경건과 기록을, 문학은 세속과 우상숭배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³⁾

-
- 1) 바울은 전도여행 중 아테네(행 17:16-21)와 에베소(행 19:23-41)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한다.
 - 2) 문익환, ‘신학과 문학의 만남’,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pp.20-21.
 - 3) 터롤리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공부는 신자에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반대하여야 한다. 그것은 문학 교수 노릇을 하려면 그 문학 속에 침투되어 있는 우상예찬을 소개하거나 긍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H.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20쇄), p.61에서 재인용.

한동안 신학이 모든 학문 위에 군림함으로써 다른 학문이 신학의 시녀라는 말을 낳게 하였다. 문학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문학도 신학을 섬겨야 하는 학문의 하나라는 인식이 지배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신학은 경건한 학문으로서 거룩함과 대등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고, 인간의 감정이나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문학은 고귀하지 못한 세속적인 학문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신학은 마치 '문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신으로 문학을 배척하게 되었고, 문학을 연구하는 측에서는 '신학은 비현실적인 주제를 선포하는 권력의 시녀'라고 응수하기 일쑤였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이 선언이 역설하는 정서는 결국에 가서 신학과 문학이 서로 벽을 쌓게 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학문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르네상스 이후 휴머니즘의 태동이 문학과 신학의 관계가 악화되게 만들었다.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계몽주의가 대두하게 되고, 계몽주의자들은 자신의 논리를 펴는 주된 무기로 문학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공격목표로 삼았던 대상이 종교(기독교)와 그 추종자들이었고 보면, 신학과 문학의 관계가 더욱 소원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성에 대한 절대 신봉과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가 등장하여 전통적인 신학사상에 회의를 품게 하였는데,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당대에 지식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문학가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헤겔, 셸링은 힐덜린(F.Hölderlin)과, 쉴라이어마허는 쉴레겔(F.Schlegel)과 교분이 두터웠고, '예수의 생애'라는 저술로 급진적인 성경비판을 시도한 슈트라우스(D.Strauß)는 신학자이자 자유문필가로서, 또한 사신신학(死神神學)의 선포자인 니이체는 자신이 철학자요 또한 작가로서 기독교를 신랄히 공격하였고, 실존주의 신학의 기틀을 연 키에르케고르도 작가로서 당시 덴마크 교계를 향하여 비난을

1) 문익환(1984), p.21. 다음의 글을 참조. "교회 전반적으로는 반문화적이 아니면, 문학을 시녀로 부러먹으려는 전통적인 고자세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렇게 예술에 대한 물이해가 판을 치는 교회 안에도..."

서슴지 않았었다.

이러한 관계는 '신학은 보수주의, 문학은 자유주의' 라는 극단적인 이분 관계를 낳게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 분리주의 문화 모델이라는 현상을 남기고야 말았다.¹⁾

2.2 종교적 공동뿌리와 문예신학

그러나 위에 언급한 역사적 반목의 시각에서 떠나 학문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가까이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신학과 문학은 종교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신학과 문학은 논리적 사유와 창작의 주체로서 인간이 그 중심에 서있다. 그 주체가 본래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 종교이기에 두 학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라는 하나의 근원에 닿게 되는 것이다.

신학은 초월적 존재와 존재자에 관한 학문으로서 종교와의 연관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²⁾, 문학도 그 기원(起源)을 종교로 보는 관점이 있다. 원시 종교에 봉사하였던 원시종합예술로부터 문학의 다양한 장르가 발전되어 나갔다는 학설이 그것이다.³⁾ 또한 문학연구 방법에서 '창작의 동기와 소재 연구'의 결과를 보아도 종교의 다양한 내용이 문학 작품에 반영되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⁴⁾ 각 민족의 근원설화 같은 장르가 종교적인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세계문학에 손꼽히는 많은 작품들이 역시 종교와의

1) R.웹버, 앞의 책, pp.77-110, '분리모델' 참조 니어버는 이런 현상을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상설하고 있다. H.R.Niebuhr, 앞의 책, p.52 이하 참조

2) A.A.Hodge, *Outlines of Theology* 「하지 조직신학」 고영민 역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5, 4쇄), p.9. "신학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학이다."

3) 문화개론편찬위원회편, 「문화개론」 (서울:새문사, 1986). 여기서는 R.G.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을 인용하여 문학의 기원을 원시종합예술로 인정하고 있다.

4) E.Frenzel의 두 권의 저서, *Motive der Weltliteratur* (1980), *Stoffe der Weltliteratur* (1981)는 이 방면에 관계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종교라는 공동뿌리를 고려한다면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끝내 학문적으로도 정립되어야 할 근거를 획득한다. 그러나 문학과 종교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그 필요성을 감지하였으면서도 독자적인 학문방법론으로 정착시키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그 관계로부터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라는 학문적 체계로 구체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지금까지 시도된 문학에 대한 종교적인 접근으로서 “종교와 문학”²⁾, “기독교와 문학”³⁾, “성경과 문학”⁴⁾ 등과 같은 연관관계에서 연구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문학이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의 해방을 통하여 인류문화에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 없다. “총체적 인간의 파악”⁵⁾이라는 문학·이념이 남긴 정신적 문화유산은 개혁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세속화(Secularization)를 가속시켰던 한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현재 문학과 종교의 관계를 연구해 온 방법론이 하나의 개념(Begriff)으로 정착되어가는 것에는 ‘문예신학’(Literatur-theologie)이라는 용어가

1) R.W.호튼/V.F.호퍼, *Background of European Literature*, 고양심 역 (춘천: 강원대출판부, 1994, 4판). 이 책은 서양문학의 근원으로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양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두 종교가 서양문학의 출발점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 종교가 문학에 끼친 영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 책은 이 방면에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한 이해를 제공한다. G.B.Tennyson, E.E.Ericson, Jr.(ed.), *Religion and Modern Literature. Essays in Theory and Criticism* (Grand Rapids, 1975).

“문학과 종교”라는 통합연구는 문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외에도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총칭하기도 한다. 『문학과 종교』라는 방법적인 개념은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숭실대학교 김영철교수가 이끄는 『문학과 종교학회』가 있다.

3) “기독교와 문학”은 기독교계에서 문학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려는 통합연구의 한 개념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Christianity and Literature』라는 범대학연구협회가 결성되어, 같은 제목으로 계간잡지를 출간하고 있다.

4) N.Frye, *Bible and Literature* 『성서와 문학』, 김영철 역 (서울: 숭실대출판부, 1993)

5) 김현, 김주연 편,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25판), p.29.

있다.” 이는 문학에 대한 신학적 접근과 신학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혼합된 연구방법론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학문적인 구조 속에서 체계화하도록 문을 연 분야들은 당연히 “종교와 문학”, “기독교와 문학”, “성경과 문학”이라는 연계성 속에서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어떤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방법론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문예신학이라는 개념만이 그 가운데서 이론의 골격을 갖추어가는 방법론이다. 문예신학은 문학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을 하게 함으로써 현대문화 속에서 문학(문학은 곧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고 본다)이 끼치는 정신사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의 고뇌(즉 인간의 존재문제)를 신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사상적 대응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예신학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다. “문예신학은 문학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에 신학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며, 사상들에 신학적인 비평의 칼을 대는 방법을 지칭한다. 이는 문학이 신, 인간, 세계를 향해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해답을 유도하는 상응적 방법(korrelative Methode)이다.”²⁾

3. 현대사회와 학문성 변화의 시대 배경

위에서 우리는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본래적으로 만나야 하는 내적

1) 이 개념은 독일의 학문계에서 먼저 사용되었는데, 이는 문예학(Literaturwissenschaft)과 신학의 역사-문화적 연관관계가 깊은 토양이 그 이유이다. 미국에서 ‘문예신학’이란 용어에 버금가는 말은 학술잡지 ‘문학과 신학’ 『Literature & Theology』이란 용어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독일의 학문적 사유의 깊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문학과 신학’ 잡지의 편집목표이다. “Literature and Theology provides a forum discussion of interdisciplinary issues and approaches which are central to contemporary critical debate. It is neither a journal of theology nor a journal of literary studies, but works creatively between the two areas of academic interest. Previous issues have included articles on biblical criticism, the ethics of reading and postmodern perspectives on questions of politics and history.” 『Christianity and Literature』(Carrollton/USA, Vol.46, 1996), p.4.

2) 추태화, ‘국가사회주의하의 기독교문학. 그 위상에 대한 한 고찰’, 『독일문학』 제 36권 3호(1994), p.320.

필연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통합연구에 대한 내적 요구가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격적인 연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기서서는 현시점에서라도 통합연구가 정립되어야 하는 외적 필연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이는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긴박하게 요청 받고 있는 연구분야라는 말이며, 이는 다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통시적인 의미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3.1 탈전통시대와 인문과학의 위상

1900년대 후반기는 여러 면에서 변화의 시기가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냉전 이데올로기가 종식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세계 구도가 정치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자문화시대, 사이버문화시대를 열어가며, 통신의 확장으로 세계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응집되어 가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파괴, 환경오염 등과 같은 어두운 현실을 낳게 되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인간의 내면이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에 반비례하여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상을 맞게 된 것이다. 나이스비트와 애버린은 『메가트렌드 2000』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 상징적인 시기(서기 2000년, 필자)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그것은 감정을 증폭시키고 변화를 가속화하며 경각심을 높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치관과 제도들을 재검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¹⁾ 우리가 과학문명의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정신문화는 황폐해져 간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과학과 경제, 발전과 실리(實利)라는 대명제는 사회구성원들의 내면세계, 즉 가치관과 생의 목적까지 조작(Manipulation)하는 결과를 가져왔

1) J.Naisbitt and P.Aburdene, Megatrends 2000, 김홍기역. (한국경제신문사, 1990), p.11.

고 이는 '진리발견'에 봉사하는 대학사회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전환기의 지성』이라는 책이 '고뇌하는 총장들이 사회에 띄우는 선언문'이라는 부제를 달게 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 대내적인 변화의 물결 앞에 '고뇌하는' 지성이 담당해야 할 몫이 결코 작지 않다고 전제한 반성의 목소리는 "타율과 혼돈의 이수라장에서 자신을 구조하여 자율에 입각한 본연의 위상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¹⁾

신학과 문학은 인문과학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문과학은 학문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들 가운데 자리해왔으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 앞에서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것은 분명 인문과학이 가지는 특성, 즉 "비실용적인 가치에의 기여", "인간적이며 가치지향적"이라는 학문적 본질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과 사회에서 현재 그 영향력을 날로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간이 인문과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드높은 것도 사실이다.²⁾

3.2 위기극복과 학문적 자리매김

이제는 어느 학문이라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인다. 모든 문화가 혼합되어 (cross-cultural) 있듯이 학문들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 현대문명의 위기를 몰고온 원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이성의 도구화' 현상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극명하게 비판되었다. 그러나 이성을 인간의 가능성으로 신뢰하였던 하버마스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사소통행위론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³⁾

위기극복의 한 제안인 '의사소통행위'는 '상호이해'라는 과정을 전제하

1) 박재규 외, 『전환기의 지성』 (서울: 나남, 1992), pp.7-14.

2) 김철수, 김종철, 『대학생과 학문』 (서울: 시사영어사, 1981), pp.148-157.

3) 김재현 외, 『하버마스의 사상』 (서울: 나남, 1996 2쇄)

는데, 이는 '통합연구'가 추구하려는 '학문간의 대화'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통합연구가 비단 어느 한 학문 분야의 전유물이 아닌 현대사회를 재조명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인간정신(Geist)이 건설한 '인간의 역사'를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의 주요분야인 문학과 신학이 등한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드러커(P.F.Drucker)는 다가오는 미래시대에도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경제의 요구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교육받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하여 인문과학 안에서 그동안 서로 소원 하여왔던 분야인 신학과 문학은 더욱 근접하여 인간회복과 미래를 위한 창조적 만남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학은 인간 본연의 감정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의 장과 만나 이루는 인간의 총체적인 문화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기대하지 않게 등장한 유통구조의 한 역기능의 희생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인다. 문학이 독자의 요구에 민감하여 그들에게 아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학이 단순한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존재이려고 할 때 생기는 병리현상인 것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문학의 이러한 정체현상들을 극복하고 문학이 철학, 신학, 역사학 등과 그 상상력과 문학적 논리를 가지고 다시 대화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리라 본다. 또한 문학 안에 숨겨져 있는 종교라는 비밀문자(Code)를 해독해 줌으로써 총체적인 문화현상으로서의 문학을 통해 인간이해를 돕도록 할 것이다.

기존의 문학연구는 타학문과의 대화나 토론이 부족한 편이었다. 그러한 전통은 문학연구 또는 인문과학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였으나 현재에는 편협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합연구는 고유영역에만 의존하였던 종래의

1) 『전환기의 자성』(1992), p.138에서 재인용.

방법을 지양하고 인문과학 내외에서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통합연구는 문학 속에 편재해 있는 기독교의 제현상을 읽어내고 평가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데에 기여하리라 본다. 기대하기는 이로서 문학에 대한, 신학에 대한 해석학적인 새로운 대안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도전 받고 있는 전통적인 '신학함' 과 신학적 인식론에 대하여 새로운 분출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확대

4.1 기독교학문과 기독교교양교육의 현황

기독교 신앙이 학문의 세계에서 최종적으로 이루려는 분야를 『기독교학문』이라고 지칭한다면 이는 인간의 이성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된다.¹⁾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이 '겸손과 헌신'이라는 덕목을 갖게 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이성이 내적 변화를 거쳐 기독교학문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은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학문』을 말할 때 연구방법론으로는 통합연구(Integ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이 용어는 기독교와 학문의 제 분야를 연결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이 방법은 기독교인들의 '십자군적인 정열'로 인하여 학문적 중립성을 잃은 면도 없지 않다고 본

1)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학문단체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학문연구회』는 이러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키고 있다. "기독교학문연구회는 기독교 문화 형성을 지향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문연구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성경적 조망을 계발, 발전시킨다. 2.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제 학문을 검토 비판하고 기독교적 학문을 정립한다. 3. 교육과 문서 활동을 통하여 삶과 학문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이해의 확산을 기한다."

다. 때로 이 통합연구라는 말이 기독교계에서 아전인수적인 방법론으로 비칠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통합연구라는 이름하에 맹목적인 신앙의 강요나 비학문적 논리를 펴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독교학문의 전반적인 부문을 다루는 방법론이 물론 아니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문학과 신학 두 분야를 접맥시켜 『기독교학문』의 길로 나아가도록 다양한 토의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전문적인 『기독교학문』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교양교육』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목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양교육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하나는 사회의 지도자로서 인격과 품성을 갖추기 위한 Liberal Education의 목표이며, 다른 하나는 세분화된 전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학문간의 상호연결성의 이해를 돕는 General Education의 목표가 그것이다. 교양교육은 네 가지 철학적 기본원리, 즉 이상주의 (Idealism), 진보주의 (Progressivism), 본질주의 (Essentialism), 실용주의 (Pragmatism)를 바탕으로 전인(全人)형성에 기여하려는 학문의 기초과정인 것이다.¹⁾ 교양교육의 목표를 연세대학교 요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²⁾

- 지, 정, 의를 균형있게 갖춘 주체적 인격의 형성
- 적성, 능력, 흥미의 개발과 자아이해의 증진
- 남과 더불어 함께 사는 태도와 기능의 개발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논리적인 사고능력과 가치판단 및 비판정신의 함양
- 기초학문 분야의 개념적 틀에 대한 이해
- 전문분야의 학습과 연구를 위한 도구적 기능의 개발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지성, 덕성, 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학교양교육 개선방안」 (서울, 1995), pp.3-16. (이하 『대학교양교육』으로 약함)

2) 「연세대학교 요람」 1994-95, p.203.

기독교계에서의 교양교육은 일반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이념을 포함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기독교학문』이 기독교지성이 다가가야 할 최종목표라면, 『기독교교양교육』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략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대학의 교양교육이 학생들에게 신앙과 함께 학문적 호기심을 접목시키고,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아직 일천해 보이는 우리 나라의 기독교학문 연구를 진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교양교육』과 『기독교학문』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을 훈련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사려된다.

교양교육의 실패를 조사한 한 보고서는 유럽 및 미국교육사에서 기독교 관련 주제들이 도덕 및 인성 교육에 모델이 된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건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강화를 위하여 기독교적인 과목을 참고하여 본다면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 일반대학이나 또는 기독교관련 대학들이 참고해 볼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훌륭한 사회인'을 지향하는 미국교육정책과 '교양인'을 지향하는 유럽교육정책이 그 모델을 공히 '기독교적 인간상'에서 찾았다는 것은 본 주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흥미 있는 일이다.¹⁾

다음은 기독교관련 대학교가 학부 과정 1, 2학년을 위해 교양과정에 개설한 기독교 관련 과목이다. 각 대학의 교양과목은 학문의 여러 분야로 지적 호기심을 유도, 발전시키며, 기초교양과 이론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미리 지적하지만 이 과목들은 거의 교양교육 정도(과목들은 모두 교양필수, 교양선택, 일반선택에 분류되어 있다)에 그치므로 『기독교학문』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강의들이 개설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기독교학문의 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방법론과 전

1) 『대학교양교육』(1992), p.97, 123, 131 참조

공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

- 강남대학교: 기독교개론(3)
- 계명대학교: 기독교의 이해(전학과, 2), 이스라엘의 역사(3), 신약강독(3), 역사신학 입문(3)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리와 윤리(2), 성경개론(3), 개혁주의 사상(2), 기독교대학과 학문(2), 기독교문화관(2), 기독교역사관(2)
- 관동대학교: 성서개론 I, II (각 1)
- 명지대학교: 성경개론 (2), 기독교 역사(2), 기독교와 현대문명(2), 기독교와 심리학(2), 기독교와 자본주의(2), 성서문학론(2), 영어성경주제(2)
- 목원대학교: 성서개설(I, II, 각 2), 기독교와 사회문제(2), 기독교와 현대사회(2)
-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개론(2), 기독교 윤리(2), 기독교 교육(2)
- 순신대학교: 신학영어(4)
- 숭실대학교: 기독교 개론, 성서개론, 기독교윤리, 현대신학, 기독교와 유교 (각 2)
- 안양대학교: 기독교와 문화(2), 사회윤리와 조일우(2), 신앙발달과 교육(2), 사회환경과 기독교윤리(2), 기독교와 사회정의(2), 성경과 문학(2)
- 연세대학교: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 현대인과 기독교(3), 성서와 기독교(3)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와 세계(3), 기독교와 현대문화(3)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현대사상(3), 기독교와 문학(3), 창조와 진화(2), 기독교와 현대사회(3), 기독교와 현대문화(3)
- 전주대학교: 구약개설(2), 신약개설(1), 기독교와 문화(3), 기독교와 현대사상(3)
- 총신대학교: 구약개요(2), 성경기억법(2), 신약개요(2), 칼빈주의 개론(2), 기독교

1) 여기에 인용된 기독교관련 교양과목은 1990년-1996년 사이 각 대학에서 발행한 대학안내 및 요람에서 참고하였음. 괄호 안의 숫자는 학점 수이다.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채플(학교에 따라서 영성 및 경건훈련이라고도 불림), 종교학개론, 비교종교론, 창조과학, 기독교 음악사, 기독교와 미술 등과 같은 과목은 생략하였다.

와 문화(2)"

- 침례신학대학교: 구약성서개론(3), 신약성서개론(3)
- 한남대학교: 현대인과 성서,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 성경과 과학 (각 3)
- 한일신학대학교: 성경 1, Ⅱ(각 2), 기독교사상원론(3), 기독교와 역사(3), 기독교와 사회문화(3)²⁾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학문이라면 신학과를 중심으로한 신학관련 연구가 대부분인 셈이고, 학문성을 가진 기독교관련 분야들이 교양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정도이므로 실제로 『기독교학문』을 총체적으로 다루며, 세분화된 각개의 전공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과 학문적인 구조를 보건대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라는 과제는 문학이면서도 신학인 것 같고, 신학이면서도 문학인 것같은 모호한 경계와 연구방법론을 극복한다면, 기독교학문의 한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4.2 통합연구 방법론 형성

통합연구는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학문방법의 한 개념이 되었다. '통합연구'와 '통합'이라는 개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던 원리이다. 예를 들면 신학협동이라는 말이나 경영분야의 '통폐합'이라는 말은 대학이나 기업의 서바이벌 요소가 되고 있다. 다각적인 변화와 세계적인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위 기업통폐합(M & A)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은 아카데미 영역 외부에서 더 활발하게 적용되어

1) 총신대의 경우, 각 학년별로 일반선택과목에 비교적 폭넓은 교양선택과목이 주어져 있다. 『총신대학교 요람』 1996, pp.88-93 참조

2) 한남대학교의 교양분야 『기독교』, 한일신학대학교의 교양분야 『기독교교양』(기독교란 무엇인가?)은 각각 다른 교양영역과 분리하여 개설한 유일한 경우다.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원리는 대학에서도 세차게 불고있다. 학부제 신설과 함께 학부 안에 유사한 과(科) 및 과목들이 폐지되고 새롭게 자리매김하므로 정착되는 소위 학과 및 과목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학문의 고유한 영역을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중첩되는 부분을 새로운 연구체계에 편입시키므로써 연구결과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개념은 전혀 새로운 연구방법이 아니다. 이 연구방법론은 이미 언급한대로 “종교와 문학”, “기독교와 문학”, “성경과 문학” 및 “문예신학”이라는 분야에서 적용되었던 선례를 보이고 있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위의 연구방법들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하려 한다. 이 연구방법은 학문의 독자적인 세계구축에서 오는 편협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학문간의 자유로운 조화와 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이 관계는 종래에 소위 Integration, Integrative Study, Relationship,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Study 등으로 지칭되어 왔는데, 우리는 학문적인 체계와 방법을 고려하여 『Interdisciplinary Study』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한다. 문학과 관련, 기존의 통합연구방법론이 적용된 예를 들자면 “문학과 철학”, “문학과 의학”, “문학과 법학”, “문학과 사회학”, “문학과 미술, 음악” 등과 같은 제목으로 행해졌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문학과 종교”라는 연구는 어느 분야보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문학과 신학”은 문학과 종교의 광범위한 대화를 일차적으로는 기독교 부문으로 압축하여 그 연구를 시도하며,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와 대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한다. 현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 불린다. 종교의 고유한 교리는 상대주의로 비취져서 여러 다양한 종교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특

1) 이 방면에는 다음 책이 통합연구방법론을 교과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J.Thorpe(ed.), *Relations of Literary Study: Essays on Interdisciplinary Contributions* (NY, 1967).

『법학과 문학 사이』(서울: 까치, 1995)라는 저서를 낸 안경환 교수도 ‘interdisciplinary’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학문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방법이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pp.24-30.

히 기독교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다. 기독교가 선포하는 유일신 사상, 우주적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구원역사 등이 직접, 간접으로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서 학문적인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해결치 못한 부분들을 검증하고 기독교학문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시도하려 한다.

4.3 통합연구의 의미

위에서 우리는 문학이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문학은 인간학적 연구(Anthropological Study)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텍스트를 제공한다. 문학을 통해 드러난 인간, 인간의 사상, 인간의 실존,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므로써, 문학은 ‘문학’에 머물지 않고 신학의 주제와 만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카톨릭 신학자 라너(Karl Rahner)가 말한 ‘신학은 인간학이다’(Theologie ist Anthropologie)란 고백은 문학과 신학의 만남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

기독교적 통합연구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이라는 오해를 종종 받게 한다. 학문의 객관성의 이름으로 특정종교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종교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학문의 현 상태에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시대에 걸맞는 토론과 대화, 연구논리를 획득케 하리라 본다. 우선 문학이라는 텍스트의 장(場)이 선입견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 외에도 현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우주시대, 전자시대, 제 3의 물결의 시대, 정보화 시대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이

1) H.Schröer, 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evangelischen Theologie 『신학이란 무엇인가』, 정일웅 역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9), p.66 참조. “신학과 학문(과학)은 인간존재의 조건들이 외면되어서는 안되는 곳 (사회, 역사, 미래, 언어, 예술 등) 즉, 실재에 대한 인간학(Anthropologie)의 분야에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용어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 용어들이 모두 기존 가치관의 변이현상을 몰고 왔다는 것이다. 이 시대는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가치관을 사실상 흔들고 있다. 이러한 때 문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사람이 있다. 미국의 문예비평가 블룸(HBloom) 교수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서양의 正典」(The Western Canon)에서 고전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의 대학 강단경험은 “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문학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고백해 했던 것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독교의 고전적인 주제들을 다시 대학으로, 사회로, 그 구성원들에게로 향하게 할 것이다. 신에 관하여, 인간에 관하여, 삶과 죽음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회윤리에 관하여, 건전한 시민철학 등등에 관하여 문학과 기독교가 만나는 대화를 가능한 범위에서 개진하게 할 것이다.

또한 통합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참다운 가치관 형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대학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生の 실제적 주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문학연구가 대학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학문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듯이 대학 내의 문학연구도 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논술연습을 위한 텍스트 정도로 문학강좌가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문학연구는 인간의 정신문화를 이루는 기본이므로 인간의 삶에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지성, 덕성,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이어야 한다면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요소들이 습득되리라 본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문학과 신학이 그동안 천착하여 왔던 문제들에 대하여 또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한다. 문학과 신학은 인간과 세계의

1)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학교육』(1996), 「지성, 덕성 및 리더십 함양과 관련된 고전의 올바른 이해」(p.66 이상)편을 참조

존재에 관하여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왔다. 즉 인간이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신의 존재를 문학이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고난이란 무엇인가? 악은 무엇인가? 신은 악을 왜 허용하였는가?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등등이 그것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 파고들도록 그 연구의 주제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하여 『기독교학문』에 요구되는 사유와 인식론에 접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학의 문서선교적 역할이다. 개혁주의 신학자 버르크호프(L.Berkhof)는 문학에 관하여 통찰력 있는 발견을 하였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문학도 '은혜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독교신학개론』에서 이렇게 쓴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대화나 문학을 수단으로 하여 (은혜가, 필자) 소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지적이 A.카이퍼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버르크호프의 발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개혁주의 정치인이요 사상가였던 카이퍼는 젊은 시절에 『레드클리프의 상속인』(The Heir of Redclyffe)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이 책은 그에게 평생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관"이 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던 것이다.²⁾ 한 권의 신학 이론서나 교리서보다도 한 권의 문학서적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잘 시사해 주는 모습이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대학교양교육』, 『기독교교양교육』, 『기독교학문』의 목표를 고려한다면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압축될 수 있겠다.

1) L.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신학개론』 신운복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28쇄), p.285.

2) F.V.Berg, 『아브라함 카이퍼』 김기찬 역 (서울: 나비, 1991), pp.38-44 참조. 이 글은 또한 카이퍼가 신학 공부 외에도 문학에 심취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문학과 신학의 통합 연구』가 이 신학자에게도 관심있는 대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 a) 문학과 신학의 학문적 대화유도
- b) 문학의 해석학적 문제를 신학에서 유도
- c) 신학의 인식론적 한계를 문학에서 보완
- d) 기독교 문학을 소개, 계발, 확장, 육성
- e) 문서선교적 차원에서 기여
 - 기독교 신앙을 문학을 통하여 변증 (Apology)
 - 문학텍스트를 기독교교육에 응용 (Christian Education)
 - 문학을 심리치유에 응용 (Christian Counseling)
 - 심리 재활에 활용 (Literary Psychorehabilitation)
- f) 여러 종교문학을 연구하여 종교간의 대화 유도 (Ecumenical Dialogue)

5.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체계와 교과과정

위 41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독교교양교육에서 기독교학문으로 향해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기독교교양교육을 위주로 편성된 연구체계를 고려하여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의 체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a) 우선은 통합연구의 기본은 '기초이론 연구분야'가 된다. 문학분야에서는 문학연구의 기초과정을, 신학분야에서는 신학연구의 기초과정을 다룬다. 이는 대학교양과정에서 시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 분야는 주로 교양필수 내지는 교양선택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b) 다음으로는 '응용이론 연구분야'로서 기초이론으로 형성된 주제와 확실한 방법론을 심도있게 적용해 보는 소위 '전공심층연구과정'인 것이다.

5.1 통합연구의 다양한 주제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다시 세분화하여 분류한다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겠다. 제 1부문은 기초작업으로서 문학과 신학의 만남을 준비하는 영역이다. 이는 원론(Principal Theory)을 세워 나가기 위한 분야이다. 제 2부문은 본격이론 연구분야로서 통합연구의 중심연구분야이다. 제 3부문은 보완이론 연구분야로서 통합연구를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지원하게 되는 이론개발분야이며, 제 4부문은 응용이론 연구분야로서 연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다양한 주제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5.1.1. 제1 부문: 원론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 a)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위한 연구문헌집
(Bibliography for interdisciplinary Study on Literature and Theology)
- b) 기독교 작가사전 (Lexicon of Christian Writers)
- c) 기독교 문학사전 (Lexicon of Christian Literature)
- d) 기독교 문예비평 용어사전 (Lexicon of Christian Literary Criticism)
- e) 신학용어사전 (Lexicon of Theological Terms)

5.1.2 제2 부문: 본격이론 연구

- a) 문학과 신학, 그 만남의 이론과 적용 (Literature and Theology: interdisciplinary Studymodel in Theory and Practice)
- b) 성경과 문학 (Bible and Literature I)
- c) 성경과 문학 (Bible and Literature II)
- d) 문학 속의 성서 (Bible in the Literature)
- e) 문학 속의 신학: 문학과 조직신학 (Theology in the Literature: Literature and Systematic Theology)

f) 문예신학 (Literature-theology)

g) 영성과 문예비평: 성경적 문학기해를 위한 시론

(Spirituality and Literary Criticism: An Experiment of biblical Understanding and Christian Literature-criticism)

h) 문예이론과 성경해석 (Literaturethe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5.1.3 제3 부문: 보완이론 연구

a) 신학자들의 문예이론 (Literaturetheory of Theologians)

b) 문학과 예술의 신학적 이해

(Theory of Literature and Arts in theological Perspective)

5.1.4 제4 부문: 응용이론 연구

a) 문학과 세속화 (Literature and Secularization)

b) 문학과 카운셀링 (Literature and Christian Counseling)

c) 철학자들의 종교비판 (Religionscriticism of Philosophers)

d) 기독교 철학과 세계관 (Christian Philosophy and World View)

e) 기독교 입장에서 본 문예사조사

(Literary Trends in the Christian World View)

5.2 커리큘럼화 작업

이제는 4.2장에서 논의된 주제들이 과연 어떻게 학과의 교과과정으로 개설가능한 지에 관하여 접근해 보려고 한다.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라는 과제가 어느 학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제 상태에서는 “문학과 신학” 연구는 문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독일의 예에서 보더라도 학자나 연구자들은 문학 아니면 신학 전공자들로 이분화 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통합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고유한 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교수의 학풍과 연구성향에 따라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들 뿐, 그들을 한 과(科)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연구하게 하는 체계는 아직 성립되지 못했다. 독일 튀빙겐 대학교 신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에큐메니칼운동 연구소 (Institut für ökumenische Forschung)가 종교간의 대화를 “문예신학”이라는 연구방법으로 실현해 보려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구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미개척 분야에 속한다. 어문학계열이나 신학과에서 이 통합연구를 시도할만한 전체적인 연구이론이 세워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학과』를 신설할 수도 없는 일로 보인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라는 분야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구조로 보자면 『기독교학과』가 기독교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융통성 있게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대학의 편제 구조상 『기독교학과』가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신학과』 또는 『교양학부』에서 담당하여 연구, 지도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 지도할 수 있기 위하여 기존의 대학 편제와 구조를 기준으로 교과과정을 제안해 본다. 일반대학들은 교양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a) 교양필수로서 공통필수, b) 교양선택(타계열 또는 대학별 선택), c) 자유선택으로 대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

1) 이 분야의 논의를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진전시키고 있는 기관은 독일 튀빙겐(Tübingen)대학교의 『Tübingen Theologie-Literatur-Symposium』(튀빙겐 신학-문학 심포지움)일 것이다. 신학분과에서는 H.Küng교수, K-J.Kuschel교수, 문학분과에서는 W.Jens교수가 주축이 되어 있다.

를 한 과단위로 묶어질 수 있는 연구분야로 생각하여 세 분야(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심층연구과정)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5.2.1. 교양필수

이는 1, 2학년까지 개설되는 교양필수 시간에 수강이 기대되는 과목이다. 여기에서 『문학과 신학』통합연구를 시작하기에 기초가 되는 주제, 논리적 도구, 인식론적인 훈련을 익히게 된다.

- a) 문학과 종교 Literature and Religion
- b) 성경과 문학 (1) Bible and Literature (1)
- c) 성경과 문학 (2) Bible and Literature (2)
- d) 기독교 문학론 (1. 성경적 원론) 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1)
- e) 기독교 문학 장르론 Genre-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 f) 기독교 문예비평 용어연습 Critical Terms of Christian Literature

과목 해설

a) 문학과 종교 (Literature and Religion)

문학과 종교는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학과 신학이라는 연구분야에 접근하기 전에 문학과 종교라는 분야를 공부하므로써 문학의 출발로서의 종교를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문학의 주제로서의 종교, 문학양식 발전의 모태가 되는 종교,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 등을 알므로써 문학 속에 나타난 종교현상에 이해를 돕게 한다.”

1) H.Gardner, Religion and Literature (Oxford 1983). G.Gunn, Literature and Religion (NY.1971). D.H.Hesla, Religion and Literature: The Second Stage, i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6 (1978), pp.181-192.

b) 성경과 문학 (1) (Bible and Literature I)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의 저자는 다양한 인물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문화,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경은 외형적으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성경은 창작은 아니지만 문학형식(역사서, 시가서, 서간체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상징, 은유, 직유, 비유 등 다양한 문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연구하여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성경원어 훈련을 권장한다.¹⁾

c) 성경과 문학 (2) (Bible and Literature II)

『성경과 문학』(1)이 성경의 문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라면 본 강의는 성경과 문학의 대화(Dialog)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에 관한 책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문학이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본다면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를 실제 작품과 성경을 대비하여 연구한다. 방법론은 톨리히(P.Tillich)의 '상응관계' (Correlation)를 참조.²⁾

d) 기독교 문학론 (1) (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I)

성경이 과학에 관한 서적이 아니므로 성경에서 과학이론을 발견하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문학에 관한 서적이 아니므로 문학이론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창조과학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문학

1) B.B.Trawick, *The Bible as Literature: The Old Testament and the Apocrypha* (NY, Cambridge, 1970). J.B.Gabel and Ch.B.Wheeler, *The Bible as Literature: An Introduction* (NY, Oxford, 1990). 김지찬, 『언어의 작공이 되라』 (서울: 말씀사, 1995)

2) 톨리히의 신학적 방법론인 Correlation은 '상관관계'라고도 번역된다. P.Tillich, *Systematische Theologie*, 3 Bde. Berlin (Bd.1: *Das neue Sein*, Bd.2: *Die Zweideutigkeit des Lebens*, Bd.3: *Der Sinn der Geschichte*, hg.v. M.Baumotte.

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¹⁾

e) 기독교 문학 장르론 (Genre-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문학의 양식 중에서 기독교 신앙, 역사와 관계하여 발달된 부분들이 있다. 때로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기독교 문학 장르가 개발된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자기참회의 형식인 고백록(아우구스티누스, 파스칼 등), 예수교단이 반동종교개혁시대에 유행시킨 종교연극, 잠언과 전도서의 영향을 받은 경구(Aphorism) 형식 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

f) 기독교 문예비평 용어연습 (Critical Terms of Christian Literature)

일반문예비평 용어사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들이다. 기독교문예비평 용어연습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문학, 또는 문화적인 의미로 정착된 내용들을 공부함으로써 기독교적인 기본인식론과 비판능력을 배양한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시대의 예술, 개혁주의 문화관, 경건주의(Pietism) 등이다.

1) L.Ryken, *Triumphs of the Imagination - Literature in Christian Perspective* (Downers Grove, 1979); *Windows to the World. Literature in Christian Perspective* (Grand Rapids, 1985). G.E.Veith, *Reading between the Lines. A Christian Guide to Literature* (Wheaton, 1951)

5.2.2 교양선택

- a) 기독교 문학론 (2) 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II
- b-1) 한국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Korean Christian Literature
- b-2) 영미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Anglo-American Christian Literature
- b-3) 독일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German Christian Literature
- b-4) 불란서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French Christian Literature
- b-5) 러시아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Russian Christian Literature
- c) 작가론 연구 Study on Christian Writers
- d) 작품론 연구 Study on Christian Works
- e) 기독교 문예비평 Christian Literature-Critic
- f) 기독교 문학과 시대문제 Christian Literature and Contemporary Problems
- g) 기독교 문학과 세계관연구 Christian Literature and Study of World View

과목 해설

a) 기독교 문학론 (2) (Theory of Christian Literature II)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 문학론(1)이 성경을 토대로 원론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이 과목은 작가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기독교 문학론이다. 기독교 문학론은 작가의 사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 따라 그 이론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연구는 반드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1) T.S.Eliot, Religion and Literature, in: Essays Ancient Literature (London, 1936). R.Schneider, Der Bildungsauftrag des christlichen Dichters, Zürich.

b-1) 한국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Korean Christian Literature)

한국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기존의 한국문학사를 기초로 하여 이광수, 전영택, 윤동주, 김현승, 황금찬, 현길언, 정연희 등 작가들을 거론한다.¹⁾

b-2) 영미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Anglo-American Christian Literature)

영미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Chaucer, Bunyan, Milton, W.Blake, J.H.Newman, G.Chesterton, T.S.Eliot, C.S.Lewis, G.Greene 등등.²⁾

b-3) 독일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German Christian Literature)

독일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Meister Eckart, Th.Murner, M.Luther, J.Spener, A.H.Francke, M.Claudius, Lavater, C.Brentano, J.Gotthelf, R.Huch, G.von Le Fort, R.A.Schröder, E.Wiechert,

- 1) 가진오, 「한국 기독교문학사론」 (서울: 성서신학서원, 1995). 소재영 외, 「기독교와 한국문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재판). 김희보, 「한국문학과 기독교」 (서울: 현대사상사, 1979)
- 2) A.Avni, The Influence of the Bible on American Literature: A Review of Research from 1955 to 1965. Bulletin of Bibliography 27 (October-December 1970), pp.101-106. E.Jennings, Christian Poetry 「영미기독교시 개관」 김영호 역 (서울: 송실대 출판부, 1992). 조신권, 「영문학 속에 나타난 성서의 향기」 (서울: 풍만출판사, 1987)

W.Bergengruen, R.Schneider, J.Klepper, H.Böll 등등.¹⁾

b-4) 불란서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French Christian Literature)

불란서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L.Bloy, P.Claudel, C.Peguy, J.Maritain, G.Mercl, G.Bernanos, S.Weil 등등.²⁾

b-5) 러시아 기독교문학사 (History of Russian Christian Literature)

러시아 문학사에서 보이는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 기독교작가들과 또는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작가 및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Tolstoi, Dostojewski, Berjajew 등등.

c) 작가론 연구 (Study on Christian Writers)

b)분야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작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한다.

d) 작품론 연구 (Study on Christian Works)

b)분야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기독교 문학작품을 연구한다.

1) M.J.Fiecke, *The Revival of Catholic Literature in Twentieth Century Germany* (Diss. Milwaukee, 1944). H.Friedmann u. O.Mann (hrsg), *Christliche Dichter im 20. Jahrhundert. Beiträge zur europäischen Literatur* (Bem, München, 1968). Tea-Wha Chu, *Nationalsozialismus und Verantwortung der christlichen Literatur. Zur Poetologie des Zwischen-den-Zeilen-Schreibens der christlichen Dichter in der Inneren Emigration 1933-1945* (Fft/M., 1994)

2) K.H.Bloching, *Die Autoren des literarischen Renouveau catholique Frankreichs* (Bonn, 1966). R.D.Fleck, *Literature and Responsibility: The French Novelist in the Twentieth Century* (Lousiana State Univ. Press)

e) 기독교 문예비평 (Christian Literature-Criticism)

기독교적인 시안과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문예비평을 할 수 있는가 이론적 작업과 실기를 병행해 본다.

f) 기독교 문학과 시대문제 (Christian Literature and Contemporary Problems)

문학 속에 비친 시대현상들. 요즘 시대를 예로 든다면, 여성문제, 노동자 문제, 빈부의 격차, 소외문제, 환경파괴, 핵위협, 자연보호, 미래문제 등에 대한 대안제시를 기독교 문학으로 찾아본다.¹⁾

g) 기독교 문학과 세계관연구 (Christian Literature and Study of World View)

문학 텍스트에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이성적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사상을 연구하므로써 역사와 시대를 대처해 나가는 논리를 배우게 되고, 또한 비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에 대하여 세계관적인 대화를 이루도록 한다.²⁾

5.2.3. 전공심층연구과정

이는 기독교학과나 신학과 같은 곳에서 3, 4학년 때부터 전공분야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다. 또는 대학원 과정을 위하여 개설할 수도 있겠다.

1) 가브리엘 바하니안, 「신의 죽음과 현대문학」, 변선환, 고진하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84).
R.Brett, The Function of Literary Imagery in Christian Understanding, in: Christian Scholar 36 (Jun.1963), pp.92-99. H.Hamsel, Tragedy and the Christian Faith, in: Christianity and Literature 22(Winter 1973), pp.8-14.
2) A.Becker, Mensch, Gesellschaft, Kirche bei H.Böhl, hrsg.v.Beckel (Osnabrück, 1966). E.Diller, F.Dürrenmatt's Theological Concept of History, in: German Quarterly 40 (1967), pp.363-371.

- a) 문예이론과 성경해석 *Literaturetheory and Biblical Hermeneutics*
- b) 문학과 조직신학 *Literature and Systematic Theology*
- c) 문학과 기독교론 *Christology in the Literature*
- d) 문학과 구원론 *Soteriology in the Literature*
- e) 문학과 인간론 *Anthropology in the Literature*
- f) 문학과 실천신학 *Literature and Practical Theology*
- g) 문예신학 *Literature-theology*
- h) 문학과 세속화 *Literature and Secularization*
- i) 문학과 카운셀링 *Literature and Christian Counseling*
- j) 기독교문학과 기독교철학 *Christian Literature and Christian Philosophy*

과목 해설

a) 문예이론과 성경해석 (*Literaturetheory and Biblical Hermeneutics*)

성경과 문학은 공히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즉 텍스트로서 연구자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 이해(Understanding)와 해석(Interpretation)에 사용되어 왔던 여러 방법론을 성경에 응용해 봄으로써 성경 텍스트 이해를 더 깊게 연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겠다: 정신사적 측면, 문학심리학, 문학사회학, 유물사관에서의 문학기해, 실증주의, 구조주의, 여성주의의 관점 등등.¹⁾

b) 문학과 조직신학 (*Literature and Systematic Theology*)

1) J.Strelka, *Methodologie der Literaturwissenschaft* (Tübingen, 1978), pp.201-330. T.Longmann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1987)

문학은 인간의 모든 체험을 담고 있는 언어예술이므로, 신학이나 철학적인 내용도 문학 형식과 언어 속에 용해되어 있다. 문학은 신존재, 인간 실존, 구원, 탄생과 죽음, 삶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므로 여기에서 신학적인 논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문학에서의 신학적 내용을 도출하므로써 진정한 신학함에 대한 자극과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c) 문학과 기독교론 (Christology in the Literature)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음으로서 예수의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사하였다. 그런데 그 대답은 시대와 사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문학에서 예수 이해가 어떻게 다양하게 묘사되었는지 연구함으로써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와 세속에서 이해된 예수가 얼마나 다른지, 왜 그런 이해를 하게 되었는지 연구하므로써 바른 기독교론으로 회복할 방법을 찾는다.²⁾

d) 문학과 구원론 (Soteriology in the Literature)

문학을 하나의 예술행위로서 종종 자기구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문학이 종교를 그 내용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문학에서 종교적인 구원을 발견하는 듯한 경우도 있어왔다. 현대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문학을 종교의 차원으로 보는 경우도 더 많이 대두되었다. 문학이 사이비종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문학에서 현대판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려는 작가들도 있다. 과연 진정한 구원은 무

1) D.Daiches, *God and the Poets* (Oxford, 1964). R.Stewart, *American Literature and Christian Doctrine* (Baton Rouge, 1958). F.Eversole, *Christian Faith and the Contemporary Arts* (NY, London, 1946)

2) K-J.Kuschel, *Jesus in der deutschsprachigen Gegenwartliteratur* (Tübingen, 1987). A.Luther, *Jesus und Judas in der Dichtung. Ein Beitrag zur vergleichenden Literaturgeschichte* (Hanau, 1968). Th.Zolkowski, *Fictional Transfigurations of Jesus* (Princeton, 1972)

엣인가를 이 연구를 통하여 개진해 본다.¹⁾

e) 문학과 인간론 (Anthropology in the Literature)

문학의 주제는 인제나 인간이다.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문화권 속의 문학은 서로 다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간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연구해 본다.²⁾

f) 문학과 실천신학 (Literature and Practical Theology)

본 강좌는 실천신학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의 효용성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연극을 통하여 예배에 기여할 수 있고 (예배학), 기독교 문학 작품을 전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전도학). 또한 현대인의 심리-정신상태를 문학을 통하여 파악하고 그 치유의 방법도 고안 할 수 있다 (치유학). 또한 신앙사와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토론함으로써 신앙과 묵상, Q. T.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할 수 있는데 이는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주일학교에 응용할 수 있겠다 (영성학, 교육 프로그램).³⁾

g) 문예신학 (Literature-theology)

문예신학은 문학과 신학의 통합연구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은 아직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지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신학 쪽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 쪽에서의 접근이다. 현재까지 수립된 이론은 신학자들의 시도로 이루어진

1) C.Gilby, *Images of Salvation in the Fiction of C.S.Lewis* (Wheaton, 1978)

2) H.Thielicke, *Mensch-sein Mensch-werden: Entwurf einer christlichen Anthropologie*, (München, Zürich, 1981). R.Guardini, *Welt und Person. Versuche zur christlichen Lehre vom Menschen* (Würzburg, 1962)

3) R.P.Crimman, *Literaturtheologie. Studium zum Vermittlungsproblem zwischen Germanistik und Theologie, Dichtung und Glaube, Literaturkritik und Religionspädagogik* (Fft/M., 1978)

것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문학과 신학의 통합연구를 시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해석학, 문예비평, 세계관 연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¹⁾

h) 문학과 세속화 (Literature and Secularization)

인류문화사를 돌이켜 보면 문화의 흐름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속으로의 과정에 한 몫 한 것이 바로 문학이다. 문학이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추구한 그 이면에는 신앙을 상대화시키고, 성서적 삶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결과도 낳았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숭배 사상 (Nature), 절대 자아의 해방 (Autonomy), 예술 지상주의, 자연주의적 숙명관, 실존주의, 동양적 운명관, 종교혼합주의, 성해방 등.²⁾

i) 문학과 카운셀링 (Literature and Christian Counseling)

문학은 독자에게 예술적 감흥과 감동을 전달한다. 독자는 문학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독자들은 문학이 제공하는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대화에 궁핍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여러 문제, 소외감, 스트레스, 고독, 우울증, 약물 중독현상, 열등감 등의 주제를 문학텍스트를 경험함으로써

1) Theologie und Literatur. Zum Stand des Dialogs, hrsg.v. W.Jens, H.Küng und K.-J.Kuschel (München, 1986). H.-E.Bahr, Theologische Untersuchung der Kunst: Poesis (Stuttgart, 1961). U.Baltz, Theologie und Poesis. Annäherung an einen komplexen Problemzusammenhang zwischen Theologie und Literaturwissenschaft (Bamberg, 1981). A.Winkhofer, Theologische Aspekte zur christlichen Literatur, in: K.Forster(hrsg.), Was ist das Christliche in der christlichen Literatur? (München, 1980)

2) 독일 카톨릭 신학자이며 뮌헨대학교 『기독교세계관학과』 교수였던 R.Guardini (1885-1968) 는 독일작가 힐덜린, 릴케의 작품론을 썼다. 구아르디니를 움직였던 집필동기는 문학작품이 젊은층의 가치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었다.

또한 F.셰퍼의 글이 이 방향의 연구 깊잡이가 될 것이다. F.Schaeffer,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 전집 V, 『기독교 사회관』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치유케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본다.

j) 기독교문학과 기독교철학
(Christian Literature and Christian Philosophy)

기독교철학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철학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철학의 기초는 의심이라면 신앙의 기초는 신뢰이다. 두 기초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즉 의심과 신뢰로 대변되는 인식론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기독교철학이 내세우는 제문제를 문학텍스트를 사용하여 해결해 본다.¹⁾

6. 맺는 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현재보다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더욱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질 것이다. 생태학(Ökologie)이나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순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는 사회나 문명이 독자적으로 존립하지 않으며 다른 문명을 만나기 위해 이동한다는 것이다.²⁾ 통합은 세계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원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학문의 연구방법론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을 불러왔으며 통합연구가 실행되도록 요청하는 원인이 된다.

정보화로 인하여 점점 더 사회구성원의 인지도가 계발되어 가는 현대사

1) Ch.R.Courtney, The Religious Philosophy of C.S.Lewis (MA-Thesis, Univ. of Arizona, 1955). H.Jones, R.Browning as a Philosophical and Religious Teacher (NY, 1891). S.Bein, Vernunftsglaube und Weisheitsglaube im Werk von M.Hausmann, in: Welt und Wort Nr.28 (1973), pp.278-285.

2) S.P.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1997), p.28. 「탈냉전 세계에서 문화는 분열과 통합의 양면으로 위력을 발휘한다. 문화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던 민족이 다시 뭉치고 있다...」

회에서, 그것도 기성종교가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종교'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의아스런 일이다. 종교적 관심과 초월적 현상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성이 불러온 과학문명이 현대인에게 오히려 정신의 공허감(Spiritual Vacuum)을 선사한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는 문학과 신학 두 학문에게도 반가운 일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황' (Conditio Humana)이 그만큼 악화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문학과 신학의 주제가 공히 '인간' 이기에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종교적'으로 탈바꿈해 가는 탈전통시대에 필요한 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권위, 강요, 압력에 의해 설득 당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어느 한 쪽에 편견을 두지 않고 학문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두 학문간의 대화를 진행시키려 한다. 문학의 '문학함'이나 신학의 '신학함'을 객관적인 논리로서 만나게 하려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방법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지성의 사유와 사상의 확립이다. 그러기 위하여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존에 실행되었던 연구분야, "종교와 문학", "기독교와 문학", "성경과 문학" 등의 분야의 공통적인 기저를 연관시키는 이론으로 체계화하려 한다. 위에서 이문학과 신학 통합 연구방법론이 하나의 교과과정으로까지 논의되었던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문학과 신학은 만날 수 있었던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로의 편견에 묶여 있었다. 더 일찍 두 학문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더라면 지금 즈음에는 유익한 이론들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학과 신학이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서도 이 만남은 필요 불가결했다고 본다. 『기독교 학문』이라는 기독교계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 교양교육』이라는 과정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기독교 교양에서 출발하여 기독교 학문에 이르기 위한 한 도정이요 진지한 사유

의 훈련장이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된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가 하나의 연구방법론으로 자리잡고, 문학과 신학이 만나는 현장, 곧 인간의 존재의 현장에서 솔직한 대화를 유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부응하는 학문과 문화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본다. 『문학과 신학 통합연구』는 학문의 엄정한 논리로 정화된 신앙고백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

1) 각주에서 연관된 책이나 출처를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였으므로 참고문헌 항목은 생략한다.